

# 독자가 인식하는 좋은 글과 나쁜 글의 기준에 대한 연구 —의학 전공생의 의학 칼럼 읽기를 중심으로

김라연 신라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제1저자)

최건아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교신저자)



- I. 들어가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제언

## I. 들어가기

우리는 일상생활 또는 학업생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접하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평가해야 하는 일이 포함되는데, 특히 학업이나 직무 상황에서는 타인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활동이 매우 빈번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때 적절히 읽는 능력은 과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타인의 텍스트를 평가할 때 독자가 갖게 되는 관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개별 독자는 선행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텍스트 평가에서 지니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개별 독자라 할지라도 어떤 목적으로 글을 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글에 접근할 수 있다. 좋은 글을 가려 읽을 때에는 어떤 요소가 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지 집중하는 반면, 글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찾아내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글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독서 교육에서는 독자가 글을 판별해 읽는 다양한 목적

또는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귀납적인 탐색이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비판적 읽기 교육이 필자의 의도와 관점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독자가 스스로 평가 기준을 세워 실제로 비판적으로 읽고, 사고의 결과를 표현하는 과정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권이은, 2016).

더욱이 공교육 과정을 마친 학습자들은 각 학문 영역 또는 직업 세계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읽기는 범교과 차원의 읽기 또는 기초 수준의 읽기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각 분야에서 이론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해당 영역의 전문 연구자들이 수행할 뜻이다. 그러나 전공 영역의 지식이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로 표현되었을 때 이를 적절한 안목으로 읽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독서 교육의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내용 영역의 하나로 의학에 초점을 두고, 의학 전공생이 의학칼럼을 읽고 평가하는 상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의학 칼럼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필자는 의학 전공 지식이 있는 이들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의학칼럼의 필자는 전공 지식을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일반인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는 의학칼럼의 질을 판별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전문 정보를 추후 실무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학 내용 영역에서 독자가 어떤 기준으로 텍스트의 질을 판별해 읽는지 분석함으로써 첫째, 독자와의 소통 기제로서 텍스트를 평가할 때 참여자들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내용 영역의 독자로서 참여자가 좋은 글의 요건과 나쁜 글의 요건으로 무엇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기로써, 텍스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독자의 관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서 교육의 내용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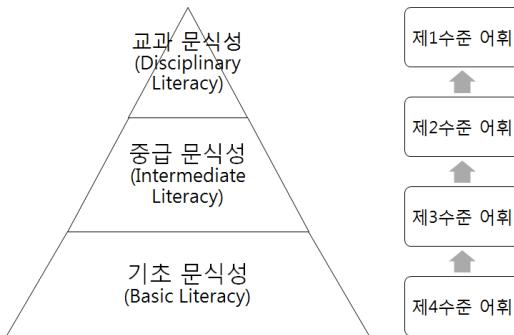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내용 영역 읽기 도구로서 칼럼 텍스트

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는 대체로 내용 영역 읽기(content area reading)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은 내용 영역의 읽기를 내용 문식성(content literacy) 또는 교과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의 개념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McKenna & Robinson(1990)은 내용 문식성을 '교과에서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교과 문식성은 여러 교과마다 특수화된 문식성으로, 기초 문식성, 중급 문식성의 상위 차원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Shanahan & Shanahan, 2008). 이 같은 정의는 내용 문식성 또는 교과 문식성이 일상적인 문식성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전공 또는 교과 영역에서 주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용 영역 읽기의 성격도 내용 문식성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Shanahan & Shanahan(2008)은 교과 문식성의 체계를 기초 문식성, 중급 문식성, 교과 문식성의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김선민(2008)의 내용 영역 읽기 어휘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림 1>과 같이 기초 문식성은 제3 또는 제4 수준의 기초 어휘 범위에, 교과 문식성은 더 상위 차원인 제1 수준 어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용 영역 읽기가 교과나 내용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기초 수준의 읽기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까닭에 내용 영역 읽기 지도는 낮은 학년급보다 높은 학년급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며, 특히 대학 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읽기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범교과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차원의 읽기 능력에 한정되어온 경향이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많은 학습자들은 중등 교육과정에



〈그림 1〉 교과 문식성 체계(Shanahan과 Shanahan, 2008)와 내용 영역 어휘 체계(김선민, 2008)

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진학하는데, 이들은 입학 후 거의 곧바로 부딪히는 전공 영역의 읽기를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첫째로 내용 영역의 읽기 교육에 대한 고민이 고등교육 이전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회과 텍스트는 사회과의 고유한 장르적 관습과 언어 특징을 내포하고, 과학과에서도 과학 분야 보고서와 관련한 합의된 전략이 존재하듯이(조성만 외, 2010) 각 교과마다 내용 학습을 위한 구조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탐색이 중등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고등교육과정에서 전공 텍스트 읽기가 능숙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학 학습자의 내용 영역 읽기 교육이 해당 전공 교수자의 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자로서 대학생이 전공 학문에서 습득한 지식을 추후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읽기의 제재와 방법 등을 고민하는 것은 독서교육 전공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전공 학습에 점진적으로 진입하고 추후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을 학습할 수 있는 제재로 전공 내용 영역의 칼럼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칼럼은 전문성, 시의성을 갖춘 글로(김기태, 2003),

‘독자를 설득하여 의사소통하기 위해 논리뿐 아니라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 글’로 정의할 수도 있다(조윤아, 2015). 또한 칼럼은 쉽고 간결하게 쓰기의 전형이며, 좋은 칼럼은 설득력, 논리 정연함, 유려한 문체 등의 조건을 갖추게 마련이다(김겸섭, 2013).

전공 내용 영역의 칼럼은 위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되 해당 전공의 전문가가 집필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깊이에 전공 내용 칼럼은 해당 전공 영역의 학습자가 전공 지식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동시에 일반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가정하여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글쓰기 유형을 조사한 Davies & Greene(1984)에서는 논리적,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는 보고서 형식의 소통적 글쓰기가 쓰기 유형의 92%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정보 전달 텍스트로서 칼럼이 의학과 전공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며, 언어 교육 차원에서 칼럼을 내용 영역 읽기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 2. 평가 목적의 읽기

내용 영역의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감상적 읽기보다는 이해 또는 평가 목적의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 글의 질을 판별하며 읽는 것은 능동적인 독서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또한 여러 차원으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평가 하며 읽기의 한 예로 비평적 읽기를 들 수 있다. 글 유형으로서 비평문은 필자와 대상 텍스트 간 상호작용을 서술한 것으로, ‘쓰기를 위한 읽기(writing to read)’를 지향한다는 특성이 있다(박영민, 2007). 이때 비평의 대상은 문학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화·연극·음악·문화·교육·정치 등을 포괄한다(박영민, 2003). 대체로 비평의 대상으로 문예문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가하며 읽기는 비판적 읽기의 차원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판

적 읽기는 비판적 담화 분석(CDA) 이론과 맥을 같이 하여 읽기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속성에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Wallace, 2005). Bond & Wagner(1966)에서 ‘텍스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읽기를 통한 참여, 실천을 강조한다. 독자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권이은, 2016, 8쪽 재인용).

비평적 읽기는 대상의 내용, 비판적 읽기는 대상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좀 더 초점을 둔다는 차이는 있지만, 독자가 평가의 안목을 지니고 읽기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 목적의 읽기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간의 독서 교육 연구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을 제시해 온 것이 이 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재기(2011)에서는 읽기 후에 이루어지는 2차적 읽기 활동으로서 해석 텍스트 읽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잘 읽도록 돋는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자가 사실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이해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독서 교육 연구의 공통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영역을 학습하는 독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평가하며 읽는지, 텍스트를 잘 평가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논의한 연구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의학 전공생은 학습 독자로서 의학 칼럼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 2) 의학 전공생이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2. 참여자

본 연구는 A 사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학과 재학생 중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텍스트 생성에 참여한 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16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되었다. 이들은 전공 영역에 대해 학습한지 2년차로 의학 지식수준 및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경험 수준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학 전공생을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영역 읽기가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읽기의 주된 범위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읽기 교육은 일반적인 수준의 독자 양성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영역의 읽기 역시 정교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지식에 대한 읽기 및 표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학 전공 대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의학 칼럼을 평가하게 하였다.

둘째,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일반인들이 의학 칼럼을 평가할 때와는 다른 전문가적인 평가자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칼럼을 읽고 서평을 작성하는데,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참여자의 성찰적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개개인의 평가적 읽기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신문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실린 좋은 의학 칼럼 2편, 나쁜 의학 칼럼 2편씩을 선정하고, 각 텍스트를 좋거나 나쁘

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술하는 서평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작성한 서평 글 204편과 비공식적인 학생 인터뷰 자료가 수집되었다.

서평 글은 모두 한글 문서의 형태였으며, 교차사례 분석(cross-case analysis)의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Miles & Hubermann (1994)에서 제안한 사전목록 방법(priori coding)과 Corbin & Strauss(1990)의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병용하였다.

사전목록 방법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적용할 부호(code)를 미리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 반면, 지속적 비교 방법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자료에서 직접 부호(code)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두 방법은 서로 반대되는 접근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을 취한 까닭은 첫째,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요건을 두 연구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자료에 접근할 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 영역을 다루는 이들인 까닭에 이들의 인식을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만 비추어서는 그 특성을 충분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분석의 출발은 사전목록의 구성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독자 고려’, ‘정보(내용)’, ‘조직’, ‘표현’, ‘가치’ 등의 항목들을 분석의 큰 범주로 먼저 설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해가며 구체적인 특성들을 구조화, 항목화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이 작성한 서평의 내용들을 의미 단위로 정리한 뒤, 이 내용들을 평가 항목으로 하나하나 부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작성한 서평을 토대로 참여자들이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출하였다. 특정 칼럼이 좋다 또는 나쁘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술한 글에서 내용을 의미 단위로 나누고, 각 의미 단위의 진술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이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개별 의미 단위를 세분화하였으며, 그 의미 단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5명의 참여자의 서평을 연구자가 각자 분석을 진행한 다음, 상호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였다. 이때,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 수준에 이를 때 까지 분석과 내용 점검을 통한 의견 교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범주화한 항목을 토대로, 어떤 칼럼을 평가할 때 어떤 준거가 양적으로 좀더 많이 선택되었는지, 이에 대한 질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참여자들이 의학 칼럼의 질을 평가한 기준은 총 1,027개였는데, 이는 다음의 10개 대항목, 29개의 소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표 1〉 의학 칼럼 평가에 활용된 기준(빈도)

대항목		소항목		좋은 칼럼	나쁜 칼럼
1	독자 고려	1.1	독자의 흥미	73	55
		1.2	독자의 이해/선행 지식		
2	필자	2.1	의사로서 전문성 발휘	5	5
3	주제	3.1	의학 칼럼으로서 적절성	13	14
4	장르 특성	4.1	칼럼의 형식 충족 여부	1	8
5	제목	5.1	독자의 흥미	12	17
		5.2	주제의 반영		
6	여조	6.1	친근함	11	10
		6.2	적절성		

7	정보	7.1	충실성/풍부함	255	249
		7.2	객관성		
		7.3	명료성		
		7.4	의학 분야/전문성		
		7.5	적용 가능성, 실제성		
		7.6	주제와의 연관성		
		7.7	독자가 원하는 정보		
		7.8	적절한 예시		
8	조직	8.1	일관성	48	84
		8.2	유기성		
		8.3	논리성		
9	표현	9.1	문장의 간결성	54	63
		9.2	쉬운 말로 풀어쓰기		
		9.3	독자의 관심		
		9.4	적절한 용어, 표현의 사용		
		9.5	참신한 표현		
10	가치	10.1	공익적 가치	38	12
		10.2	독자의 실행 유도		
		10.3	독자의 인식 개선		

위 기준에 대한 참여자들의 선택 비중은 글에 따라 달라졌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는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7.1 충실성’, ‘7.7 독자가 원하는 정보’, ‘7.4 의학 분야의 전문성’, ‘9.2 쉬운 말로 풀어쓰기’ 항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각 평가 상황에서 특히 높은 빈도를 보인 평가 항목들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1 독자의 흥미’, ‘7.8 적절한 예시’ 등의 항목의 활용도가 높았다. 나쁜 의학 칼럼 평가 상황과 대조해볼 때, ‘10. 3 독자의 인식 개선’, ‘10.2 독자의 실행 유도’와 같은 ‘가치’ 항목의 활용도가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2〉 의학 칼럼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항목의 활용도

항목 순위	좋은 의학 칼럼 평가		빈도	나쁜 의학 칼럼 평가		빈도
1	7.1	충실성/풍부함	66	7.1	충실성/풍부함	81
2	1.1	독자의 흥미	62	7.6	주제와의 연관성	39
3	7.8	적절한 예시	55	8.2	유기성	35
4	7.7	독자가 원하는 정보	42	1.1	독자의 흥미	34
5	7.4	의학 분야의 전문성	37	7.7	독자가 원하는 정보	33
6	9.2	쉬운 말로 풀어쓰기	32	8.3	논리성	33
7	8.2	유기성	28	7.4	의학 분야의 전문성	31
8	7.3	명료성	19	9.2	쉬운 말로 풀어쓰기	26
9	10.3	독자의 인식 개선	18	7.2	객관성	24
10	7.5	적용 가능성, 실제성	17	7.3	명료성	24
11	10.2	독자의 실행 유도	15	1.2	독자의 이해/선행 지식	21

반면, 나쁜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7.6 주제와의 연관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좋은 의학 칼럼 평가에서보다 '8.2 유기성', '8.3 논리성', '1.2 독자의 이해/선행 지식'의 평가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평가기준, 그리고 좋은 의학 칼럼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았던 평가기준, 나쁜 의학 칼럼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았던 평가기준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 1. 공통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평가기준 분석

### 1) 충실성/풍부함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가

장 많이 활용한 평가기준은 ‘충실성/풍부함’이었다. 특히, 좋은 칼럼을 평가할 때에는 43명의 참여자가 66회, 나쁜 칼럼을 평가할 때에는 36명의 참여자가 81회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좋은 의학 칼럼이란 ‘내용이 좋은 칼럼’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좋은 내용’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충실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충실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7.7. 독자가 원하는 정보’ 항목을 같이 결합하여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충실성 항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 〈자료 1〉

- ⑦연령별로 필수인 건강검진을 소개하였으며 ~ ⑧건강검진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알려주어 환자의 편이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참여자 3)
- ⑨좋은 의사와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알려주어 좋았다.(참여자 10)

〈자료 1〉에서 보듯이, 참여자 3의 “⑦연령별로 필수적인 건강검진의 소개”, “⑧건강검진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참여자 10의 “⑨좋은 의사와 치료가 무엇인지”에서처럼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가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실에 입각한 근거의 충실성’이 주요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도 ‘충실성’은 내용의 ‘7.2. 객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참여자 25는 좋은 의학 칼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적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근거가 확실하고 충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자료2〉

- 서론에서는 안경을 잘 골라야 하는 이유에 눈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고 적혀있지만 ②정작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에 눈 건강이 안 좋아지 는지에 대해 적혀있지 않다. (참여자 17)
- ④다이어트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빈혈 치료법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참여자 19)

참여자들은 ‘④본문에서 어떤 경우에 눈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④다 이어트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빈혈 치료법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와 같이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한편, ‘충실성’ 항목은 나쁜 칼럼을 분석하는 상황에서는 전달하려는 내용이 양적으로 충분한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자료 3〉

- 한의학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내용을 소개하였으나 ④설명이나 근거가 부족 해 보였다. (참여자 3)
- 이 글을 읽고 나면 ④‘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증의 일종이다.’와 ‘아스퍼거 증 후군을 앓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된다.’ 내용 말고는 남는 내용이 없다.(참여자 7)
- ④너무나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참여자 11)

〈자료 3〉에서 보듯이, 참여자 3은 ‘④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그리고 참여자 7은 ‘④특정 내용 말고는 남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참여자 11은 ‘④’에 서 과도한 정보의 양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근거가 불충분하면 효과적인 내용 이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독자에게 질병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물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이라는 부분을 읽고, ‘나는 자연 치유되는 중일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병을 만성화시켜 더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참여자 12의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평가라 하겠다.

참여자 7은 “지나치게 폭을 넓게 설명하게 되면 흥미도가 떨어지고 글이 어려워지게 되고, 너무 좁은 부분만 보여주면 지식은 필자의 머릿속에만 있고 독자에게는 ‘~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다소 권위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되어버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여 좁지 않은 폭의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칼럼’을 좋은 의학 칼럼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 2) 의학 분야의 전문성

참여자들은 좋은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사라는 특정 직업군의 시각과 입장을 주목하였다. 즉, 의학 정보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의학 칼럼이라 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좋은 의학 칼럼 평가에서는 37회, 나쁜 칼럼 평가에서는 31회 사용되었다.

### 〈자료 4〉

- ①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국민의 선택을 ‘불안’과 ‘과다 한 긴장상태’의 결과로 본 점이 흥미로웠고(참여자 1)
- 독자들이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의 기전에 대해 알게 한 후에 글쓴이는 ②의사들이 어떻게 수면문제에 접근하는지 서술한다.(참여자 19)

〈자료 4〉의 “①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②의사들이 어떻게 수면문제에 접근하는지”에서 보듯이, 참여자들은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

르는 의학적인 관점을 제시해줄에 따라 사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 시켜줄 수 있으며(참여자 33), “해당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참여자 21)”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2는 “의학 칼럼의 필자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이 어떤 칼럼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 37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갖고, 주제에 대해 정통할 때 쓰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의학 칼럼에서는 의학적 내용을 전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독자에게 큰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전달하는 정보가 전문적인 수준의 의학 정보인가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돋기 위해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진술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 기준은 ‘7.1. 충실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충실성’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에 대한 논의라면, 이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서 의학 전문 분야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항목간의 성격을 차별화할 수 있다.

#### 〈자료 5〉

- 글쓴이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③ 뇌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여 신선힘을 준다.(참여자 27)
- ④ 정확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가져와 설명해나가는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글의 내용에 대해 신뢰를 하게 해주었다.(참여자 51)

〈자료 5〉에서 보듯이, 참여자들은 ‘③’과 같이 의학적 지식을 “전문적 언어(참여자 8)”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야함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으며,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참여자 43)”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나쁜 의학 칼럼을 분석할 때, “전문적인 의학 칼럼이므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참여자 31)”, “어지럼증의 원인을 다양한 증상에서 설명했으면 좋겠다.(참여자 24)”와 같이 보다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평가항목으로 드러난다. 한편, 지나치게 전문적인 정보와 용어로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의 난이도와 기술 방법을 재고할 것을 조언하였다.

의학 칼럼은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 기술된 의학 정보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글보다 의학 정보의 전문성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한 의학 정보의 전문성이라는 기준은 의학 전문가로서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일반 독자들이 평가를 할 때 고려하기 어려운 항목이지만, 전문 독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증할 수 있었다.

### 3) 쉬운 말로 풀어쓰기

대항목(영역) ‘표현’ 영역은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영역이다. ‘표현’ 영역의 고려는 ‘정보’, ‘독자 고려’ 영역에 이어 세 번째로 활용 빈도가 높았는데, 특히 ‘쉬운 말로 풀어쓰기’ 항목이 적극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쉬운 말로 풀어쓰기’ 항목은 좋은 의학 칼럼에서는 22명의 참여자가 32회, 나쁜 의학 칼럼에서는 18명의 참여자가 26회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항목을 고려한 인원은 28명밖에 되지 않으나 총 빈도는 58회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특정 인원이 매우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쉬운 말로 풀어쓰기’는 독자를 고려하는 항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표 3〉 대항목 '표현' 영역의 평가기준 활용도

대항목	소항목	좋은 의학 칼럼		나쁜 의학 칼럼	
		빈도	사용자	빈도	사용자
표현	9.1 문장의 간결성	4	4	8	6
	9.2 쉬운 말로 풀어쓰기	32	22	26	18
	9.3 독자의 관심	11	9	17	11
	9.4 적절한 용어, 표현 사용	6	6	9	7
	9.5 참신한 표현	1	1	3	2

다. 어려운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는 것 자체가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의학 칼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글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 항목을 활용한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많이 노출되지 않는 글을 좋은 의학 칼럼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 진료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환자가 질문할 수 있지만, 칼럼에서는 독자가 글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참여자 3)”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판단하였다.

참여자 19는 의학 분야는 “용어가 생소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독자들이 겁을 먹기 쉽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되도록 의학적인 용어 없이(참여자 16)” 설명한 글, “일반인들이 아는 용어를 사용하여(참여자 25)” 진술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참여자 29)”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항목에 대한 고려가 많은 것은, 의학 칼럼에 많이 노출되는 의학 전문 용어가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과 의학 칼럼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 하겠다.

## 2. 좋은 의학 칼럼 평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평가기준

### 1) 독자의 흥미

‘독자의 흥미’ 항목은 전체 참여자 중 45명의 참여자가 활용하였는데, 특히, 좋은 칼럼 평가에서는 43명의 참여자가 62회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글의 도입에서 흥미유발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주목하였다. 나쁜 의학 칼럼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차원에서 ‘독자의 흥미’를 반영하였는가에 초점을 둔 반면, 좋은 의학 칼럼 평가에서는 ‘도입’ 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자료 6〉

- ④자신이 참가한 워크숍 이야기를 하면서(참여자 4)
- ⑤60세 전직 교사 김모씨의 생활에서의 고충을 예로 들며 글을 시작한다.(참여자 11)
- <도입부>에서 ⑥서울의 한 초등학생의 일화를 들며 시작한다.(참여자 21)

참여자들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독자 고려의 방법은 실제 생활 속의 사례를 드는 것이었다. “④자신이 참가한 이야기”를 하거나 “⑤60세 김모씨의 고충을 예로 드는” 경우, 그리고 “⑥한 초등학생의 일화로 도입을 시작하는” 사례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누구나 경험해 봄직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의학 칼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최근 올림픽에서 활약한 팰프스 선수의 사례에서처럼(참여자 3)”,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뉴스 보도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여”에서처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며 서두를 시작하는 경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질문을 사용하는 진술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법한

일반적인 질문(참여자 48)"으로 서두를 시작하거나 "주제에 대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는(참여자 2)"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제기하면서 글의 도입을 시작하는 것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환자들의 관심을 유도(참여자 35)" 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참여자 19)"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적절한 예시

이 항목은 참여자들이 좋은 의학 칼럼을 평가할 때 적극 활용한 항목이다. 좋은 의학 칼럼 평가에서는 32명의 학생이 55회, 나쁜 의학 칼럼 평가에서는 11명의 참여자가 11회 활용하였다.

적절한 예시의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4.2.1. 독자의 흥미'와 연결되어 글의 도입부에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사용되었다.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 속의 사례'를 드는 방식은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는 항목인 동시에 적절한 예시가 사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글의 본문에서도 적절한 예시의 사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본문에서 어려운 의학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예시의 활용을 높이 평가하였다.

### 〈자료 7〉

- '불안', '회피', '방어기제' 등의 정신과적 개념에 대한 예시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글이다.(참여자 25)
- 글 중간중간에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글쓴이 본인이 겪은 내용도 써 서 글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참여자 6)

〈자료 7〉에서 보듯이,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문에서는 “전문 서적의 사례나 의사로서의 경험 속에서 나온” 전문적인 사례들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입 부분에 사용된 예시는 “향후 자신이 논의할 내용에 대해 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참여자 21)” 할 수 있으며, 본문에 사용된 예시는 어려운 의학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서론, 본론, 결론을 지나면서 각각의 요소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지하고 환기 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 자신의 의서로서 경험이나, 경험했던 환자, 이슈 등을 추가하여 독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장치를 가진다면 더 좋은 칼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참여자 43의 말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은 글의 도입, 본문,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적절한 예시가 적극 활용되는 의학 칼럼을 좋은 칼럼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3) 가치

대항목 ‘가치’ 영역은 좋은 의학 칼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된 분석 기준은 아니었지만 특히 좋은 의학 칼럼을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된 평가 항목이었다. <표 4>에서 보듯이 ‘가치’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양상은 좋은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만 적극 고려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가치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칼럼의 1차적 목표를 넘어 독자의 삶과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참여자들은 의학 칼럼으로서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 이상으로 얼마나 더 나은 글인지에 판단하는 데 가치의 잣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학 칼럼에서 ‘독자의 실행 유도’를 평가하는 항목과 ‘독자의 인식을 개선’을 평가하는 두 항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대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자의 실행 유도’ 항목의 경우, “여러 사례를 통해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참여자 26)” 하였거나, “다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를 도운(참여자 31)” 점,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표 4〉 대항목 '가치' 영역의 평가기준 활용도

대항목	소항목	좋은 의학 칼럼		나쁜 의학 칼럼	
		빈도	사용자	빈도	사용자
가치	10.1	공익적 가치	5	5	3
	10.2	독자의 실행 유도	15	13	3
	10.3	독자의 인식 개선	18	14	6

(참여자 41)" 실천 가능한 독자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독자의 인식 개선' 항목의 경우, 의학 칼럼을 통해 "질병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참여자 20)"해 준 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한(참여자 18)" 점,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참여자 3)"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칼럼의 주된 목적이 "문제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독자들이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공유(참여자 4)"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영역의 평가기준 활용을 통해 "의학 칼럼은 의학 정보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독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참여자 27)"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의학 칼럼을 평가하면서 사용한 기준들은 일반적인 칼럼을 평가하는 기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의학 칼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 필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3. 나쁜 의학 칼럼 평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평가기준

#### 1) 주제와의 연관성

참여자들은 나쁜 의학 칼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제와의 연관성’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항목은 좋은 의학 칼럼 선정 시에는 6회 사용된 반면, 나쁜 의학 칼럼 선정에서는 39회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단 글을 거시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면 독자는 해당 텍스트를 나쁜 글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참여자들은 칼럼의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전체 주제와 상관없이 의학적 내용을 뜯ぐ없이 제시한(참여자 2)’ 칼럼,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칼럼의 절반을 채워버린(학생 19)’ 칼럼 등을 나쁜 칼럼으로 판단하였다. “내용 중간부분부터는 세월호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안전 불감증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대목이다.(참여자 34)”라는 진술에서처럼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글 내용이 진술된 글은 좋은 글로 평가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자료 8〉

- 제목은 스트레칭으로 어깨 질환을 푸는 것인데 막상 내용에는 어깨 질환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정보만 제시해주고 스트레칭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떤 스트레칭이 어디에 효과 있는지 스트레칭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관절 내시경에 대한 설명은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학생 13)
- [다이어트 여학생 ‘빈혈 위험’] 이라는 칼럼의 제목과는 다르게 칼럼의 내용은 다이어트 여학생이 철분 소실 ‘고위험군’이라며 몸매 때문에 다이어트나 절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학생 19)
- 알레르기 관리법이라는 제목과 상반되게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병원에 와서 진단받아야 한다.’라는 정보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학생 31)

이러한 분석의 기준은 ‘제목과 진술 내용의 불일치 여부’로 더욱 세심하게 평가되고 있었다.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장치가 제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목과 진술된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곧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되었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라 하겠다.

## 2) 조직

‘조직’과 관련된 평가 항목은 좋은 칼럼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극 활용된 항목은 아니었으나 나쁜 의학 칼럼을 평가할 때에는 중요하게 언급된 특징이 있다. 좋은 의학 칼럼을 분석할 때에는 5명의 참여자가 6회 사용한 반면, 나쁜 의학 칼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26명의 참여자가 총 39회 활용하였다. 유독 나쁜 의학 칼럼의 분석에서 글의 ‘조직’과 관련된 항목이 많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형식 측면에서는 의학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글 구조를 사용했는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내용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구조를 택하는 것이 좋은 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질병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필자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참여자 7의 의견처럼, 의학적 내용을 가장 잘 진술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 〈자료 9〉

- 이에 대한 설명 없이 ① 긴 정보의 나열이 계속되면 독자는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참여자 2)
- 병에 대해 꼭 ② 필요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한다.(참여자 8)
- 독자가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③ 기전, 발병률, 치료시기 등의 순서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참여자 7)
- 조기 예방을 위해 검사를 권장하는 글 위주로 썼으면 좋겠으나 ④ 병렬식으로

계속 치매의 원인들을 구구절절하게 나열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참여자 26)

〈자료 9〉에서 보듯이, 참여자들은 ①와 ②에서처럼 ‘어려운 의학적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은 어려운 의학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조직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학적 내용을 ‘③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위 구조로 ‘원인-결과’의 구조의 진술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더 세부적으로는 ④질병에 대한 명확한 정의, 위험성, 기전(증상), 증상, 치료법, 예후’의 순서로 서술해야함을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 특히, 거시 구조 측면에서 의학 칼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참여자 31은 “의학 칼럼에서 의학적 정보를 단순 나열하게 될 경우에는 독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글안에 사진처럼 정보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는 참여자 32의 말처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의학 칼럼만이 갖추어야 할 글의 구조적 형식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 3) 독자의 배경지식

‘독자 고려’의 항목은 의학 칼럼을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식은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글을 달리 써야 한다.(참여자 26)”는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에서는 노인성 질환 등을 선정하고, 학부모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아이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참여자 3)”는 내용에서 보듯이, 독자에 대한 고려는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내용의 선정, 내용의 진술 방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있었다.

4.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자의 흥미’ 항목은 좋은 의학 칼럼 분석에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에 비하여 ‘독자의 배경지식’은 나쁜 의학 칼럼 분석에서 더 많이 활용되었다. 좋은 의학 칼럼을 분석할 때에는

이 항목이 11회밖에 사용되지 않은 반면, 나쁜 의학 칼럼에서 22회 사용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이 항목과 관련하여 주제와 소재가 독자에게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다. 참여자 11은 ‘주제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필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독자의 배경지식에 비해 너무 어려운 주제는 ‘이 지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학생 12)’ 있음을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글의 내용이 독자의 배경지식에 비추어 적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 사항에서는 전달하려는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 소 과도하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내용(참여자 41)’, ‘독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정보(참여자 31)’라는 지적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의학 내용은 의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지 일반 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다(참여자 33)’라고 인식하였으며, ‘의사들끼리만 사용하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 6)’라고 하여 의학 칼럼의 내용을 선정하고 기술할 때 독자에 대한 배려, 특히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의학 정보가 너무 쉽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글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없다(학생 5)’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의학 칼럼이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어서도 안 되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대중이 읽어서 부담이 되는 내용이어서도 안 됨(참여자 31)”을 강조하였다. “독자가 짧은 의학 칼럼을 읽을 때마다 사전을 뒤지고 전문서적을 뒤져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글일까?”라고 말한 참여자 32의 질문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한 내용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의학 전공 대학생들은 다양한 의학 칼럼 중에서 자신이 직접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선정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평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기술한 서평의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칼럼과 나쁜 칼럼을 평가한 기준을 추출해내었으며, 이를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 의학 칼럼을 평가하는 기준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이 제시한 평가 기준은 일반적인 글 읽기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과 칼럼 읽기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의학 칼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4.1. 칼럼의 형식 충족 여부’는 모든 칼럼이 충족해야 할 요건이며, ‘10.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정보 전달과 독자의 인식, 실행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칼럼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학 칼럼이 갖출 요건으로는 ‘2.1 의사로서 필자의 전문성 발휘’, ‘3.1 의학 칼럼으로서 적절성’, ‘7.4 의학 분야/전문성’을 들 수 있다. 표현 측면에서의 ‘9.2 쉬운 말로 풀어쓰기’도 해당 평가 내용이 대체로 의학 용어의 설명과 관련해 논의된 것으로 이 역시 의학 칼럼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요건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텍스트가 갖출 요건에 해당한다. 정보의 풍부함, 객관성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의학 칼럼을 일반적인 텍스트 범주에서 이해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장르 특성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이 의학 칼럼을 평가하면서 사용한 기준들은 일반적인 칼럼을 평가하는 기준들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의학 칼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 필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발

견할 수 있다. 예컨대 소항목 ‘10.1 공익적 가치’의 경우, 독자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넓은 범주에서는 독자에게 유익한 가치로 해석할 수 있고, 어조의 ‘6.1 친근함’ 역시 독자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항목들이 결국 ‘독자 고려’에 수렴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독자 고려’는 일반적인 읽기 상황에서의 독자 고려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읽는 이 자신을 독자로 상정한다. 그런데 참여자들이 고려한 ‘독자 고려’ 항목은 자신들을 독자로 상정하기보다는 환자, 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을 독자로 상정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의학 칼럼을 단순히 의학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진료하는 또 다른 장으로 인식하고 마치 환자를 대하듯 의학 칼럼을 분석,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전문 내용 영역의 읽기가 지식 습득과 고양에도 도움이 되지만, 추후 직업 세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결과에서는, 참여자들이 좋은 의학 칼럼과 나쁜 의학 칼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글의 평가 기준이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좋은 글과 나쁜 글 각각을 선별하는 데 있어 강조점을 둔 평가 항목은 대조되었다. 이는 독자의 입장과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글을 평가할 때 가중치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나쁜 의학 칼럼을 선정할 때 참여자들은 텍스트의 질이 떨어지는 칼럼, 나쁜 의학 칼럼의 전형을 찾는 데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언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이 나쁜 칼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평가 기준들은 의학 칼럼이 갖추어야 할 최소 조건을 상정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고등 수준의 학습자라 하더라도 읽기 교육의 중요한 대상이며 이들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내용 영역 읽기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

학습 경험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의학 지식을 확인하고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였으며, 일반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등 수준의 학습자가 내용 영역의 읽기를 수행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전공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읽기에서 주목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 학습자는 대학이라는 독특한 담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학습하는 존재이다. 이들이 처한 전공이 어떤 문화 또는 교수·학습 목표를 표방하는지에 따라 읽기의 양상도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다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장르별, 대상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어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용 영역의 읽기 교육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17. 11. 20. 투고되었으며, 2017.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7.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이은(2016),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서평 쓰기에 나타난 비판적 읽기 양상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60, 5-2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겸섭(2013), 「칼럼 기반의 대학 글쓰기 교육 모델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70, 165-189,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기태(2003), 「칼럼리스트 의식조사」, 『저널리즘 평론』 16, 193-230, 저저널리즘 평론.
- 김선민(2008), 「내용영역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질문생성 전략」, 『교과교육연구』 1(1), 267-290,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박영민(2003), 「비평문 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영민(2007), 「비평문 쓰기 교육의 방법」, 『오늘의 문예비평』, 100-114, 오늘의 문예비평.
- 이재기(2011), 「학생 필자의 해석 텍스트에 대한 '반응 중심' 작문 평가」, 『작문연구』 13, 169-190, 한국작문학회.
- 조성만·이영진·권태현(2010), 「교과별 좋은 글의 기준 차이에 대한 분석 -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6, 353-378, 한국국어교육학회.
- 조윤아(2015), 「칼럼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 반응 및 지도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8), 343-36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Bond, G. L. & Wagner, E. B. (1966), *Teaching the child to read*. NY: Macmillan.
- Corbin, J.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4th Ed.), Thousand Oaks: Sage.
- Davies, F. & Greene, T. (1984), *Reading for learning in the sciences*. Edinburn: Oliver and Boyd.
- McKenna, M. C. & Robinson, R. D. (1990), "Content literacy: a definition and implications," *Journal of Reading* 34(3), 184-186.
- Miles, M. B. & Huberman, M. A.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hanahan, T. & Shanahan, C. (2008), "Teaching disciplinary literacy to adolescents: re-thinking content-area literacy", *Harvard Educational Review* 78(1), 40-59.
- Wallace, C. (2005), *Critical reading in language education*,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독자가 인식하는 좋은 글과 나쁜 글의 기준에 대한 연구 —의학 전공생의 의학 칼럼 읽기를 중심으로

김라연, 최건아

본 연구는 독자가 좋은 글과 나쁜 글 각각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읽기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는 51명의 의학 전공생이 참여해 좋은 의학 칼럼 2편, 나쁜 의학 칼럼 2편을 각각 선정하고 선정한 근거를 기술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두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을 분석함으로써 의학 칼럼에 대한 평가기준들을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이 비중 있게 꼽은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좋은 의학 칼럼을 선정할 때에는 독자의 흥미, 적절한 예시, 가치에 집중한 반면, 나쁜 의학 칼럼 선정 시에는 주제와의 연관성, 조직, 독자의 배경지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 수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글을 1차 평가하고, 더욱 질 높은 글이 갖출 추가적 요건을 상위 수준에 두고 적용하는 독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독서교육, 독자, 인식, 평가, 좋은 글, 칼럼

## ABSTRACT

# Readers' awareness of the standards of good and bad texts

: A study of medical students' readings of medical columns

Kim Ra-yeon, Choi Geon-a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duct implications for reading education investigating readers' standards for good texts and bad texts. 51 medical students as participants selected 2 good medical column texts and 2 bad medical column texts individually and composed texts describing the reasons for selection. 2 researchers analyzed participants' texts and identified various standards for evaluating medical column texts.

The findings showed that when asked to select general examples of good texts, the participants focused on "readers' interest," "proper examples," and "value," but they emphasized "interrelationship of thesis," "organization," and "readers' background knowledge" while selecting high quality reading material for themselves.

This results means readers tend to focus minimum standards when they face texts first, and they appicate high-level standards for distinguish more high quality texts.

**KEYWORDS** Reading Education, Reader, Awareness, Evaluation, Good Texts, Column